

朴來榮*

長期人口成長과 勞動力需給展望

- I. 人口成長과 勞動力需給과의 關係
- II. 勞動力供給의 變化
- III. 勞動力需要의 變化
- IV. 勞動力需給展望
- V. 對應姿勢

I. 人口成長과 勞動力需給의 關係

勞動力의 供給은 生産年齡人口와 經濟活動參加率에 의하여 좌우되고 勞動力의 需要는 産業經濟의 規模와 雇傭係數에 의하여 결정된다.

勞動力供給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生産年齡人口가 總人口의 일부분이므로 人口의 規模와 構造는 勞動力供給에 지배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물론 經濟活動參加率은 生産年齡人口의 性別年齡構成 외에 教育水準, 所得水準 등의 個人變數와 賃金水準, 景氣變動 등의 勞動市場變數의 복합적 影響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人口의 構造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임에 틀림없다. 勞動力需要는 근본적으로 經濟規模와 構造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雇傭係數는 産業構造나 技術水準과 같은 經濟的 要因 이외에 勞動力供給의 性格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影響을 받고 있다.

결국 靜態的으로 보면 한 時點의 人口의 規模와 構造가 그 시점의 勞動力 需給面에 影響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影響의 정도가 달라 勞動力供給에는 길게, 그리고 勞動力需要에는 열게 작용할 뿐이다.

人口와 勞動力需給 사이의 靜態的 관계와는 달리 動態的 관계는 상당한 時差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의할 必要가 있다. 물론 人口成長이 社會的 要因에 의하느냐 또는 自然的 要因에 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勞動力需給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 弘益大學校 商經大學 教授

時差를 달리한다. 社會的 要因의 人口成長은 勞動力需給에 비교적 즉각적인 影響을 미치지만 自然的 要因인 出生에 의한 人口成長은 15年 이상의 긴 時差를 두고 勞動力需給에 影響을 미친다. 어떤 時點에 出生한 사람이 勞動能力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期間이 所要되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人口成長을 장기적인 時角으로 보면 세단계(段階)를 거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후 약 10여년 동안 海外歸還同胞와 越南同胞의 大量流入이라는 社會的 要因에 의하여 人口가 급증한 것이 그 1段階이다. 動亂이 끝난 '50年代 中반부터 「베이비·붐」에 의한 높은 出生水準과 뚜렷이 저하된 死亡水準으로 인하여 급격한 人口의 自然增加를 보인 것이 그 2段階이다. 그리고 人口增加抑制의 政策的 努力이 시작됨으로써 出生水準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人口成長이 둔화되기 시작한 '60年代 中반이후가 그 3段階이다.

이러한 長期人口成長의 段階的 變化가 勞動力 需給에 각각 性格을 달리하면서 影響을 미친 것이다.

第1段階의 社會的 人口增加는 별로 時差를 두지 않고 곧바로 勞動力의 供給增大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대된 勞動力을 흡수할 經濟成長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은 '60年代 초까지 무제한의 勞動力供給과 大量失業으로 특징지워진 것이다. 이때까지는 第2段階에서 급증한 出生人口가 勞動能力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勞動市場에는 거의 影響을 주지 못하였다.

당시 무제한의 값싼 勞動力을 活用하여 勞動集約的인 工業化를 추진함으로써 그 때까지 經濟發展의 장애요인으로만 느껴졌던 過剩勞動力을 經濟成長의 原動力으로 전환한 것이 초기의 經濟開發計劃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經濟成長이 추진됨에 따라 '60年代 말에 이르러 가장 값싼 젊은 女性勞動力의 確保가 다소 困難해지게 되었다. 마침 이즈음 第2段階에 집중적으로 出生한 人口가 勞動力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젊은 勞動力의 一時的 不足은 곧 해소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經濟는 높은 實質賃金の 상승없이 高度成長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젊은 勞動力供給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年代 후반에는 人力不足이 表面化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의 人力不足은 급격한 產業構造의 轉換과 過熱된 景氣에 비하여 必要한 人力의 養成, 配分 및 活用の 체제를 갖추지 못한 탓으로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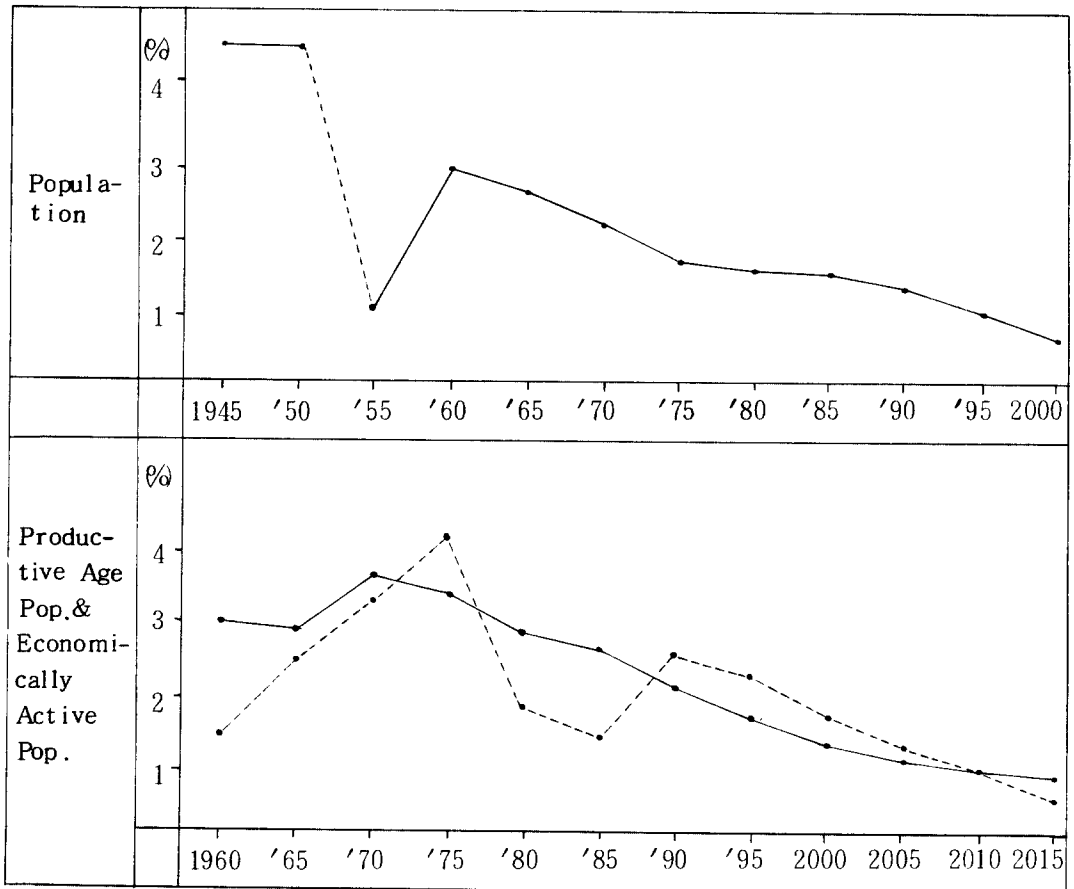
된 「總量的 過剩속의 部分的 不足」이었다고 규정되어진다.

第3段階 人口成長의 特性이 勞動力需給에 影響을 미친 것은 '80年代 으로부터 이다. '60年代 中반부터 增加勢가 鈍化된 出生水準의 影響과 때마침 불어닥친 景氣 不況이 겹쳐 '80年代 初 부터 젊은 勞動力의 供給增加는 현저하게 鈍化되었으며, 勞動力需給이 모두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 결과 勞動市場에서는 需給兩面에서 여러 가지 變化의 徵候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長期人口成長과 勞動力需給變化의 關係가 15년 이상의 긴 時差를 두

Figure 1. Growth Rate of Population and of Labor Force

(with 15 years time lag)



Source; Bureau of Statistics, EPB &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Note; - - - is fo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70年代 초 이후의 人口變動을 바탕으로 서기 2000년에 이르는 기간의 勞動力需給事情의 變化를 豫測하고 對應해야 할 뿐아니라 21世紀의 勞動力需給에 均衡과 調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절한 人口政策을 定立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II. 勞動力供給의 變化

'80年代에 접어들면서 勞動力供給의 規模와 構造에 커다란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總量的으로 보면 '70年代 말까지 급격하던 生産年齡人口의 增加가 鈍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上昇해오던 經濟活動參加率 역시 低下의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經濟活動人口의 增加가 현저하게 鈍化되었으며, 급기야 1984년에는 그 絕對數의 減少現象까지 보이고 있다.¹⁾

1963 ~ 1969年 사이에 年平均 2.6%로 增加하던 14세 이상의 生産年齡人口가 「베이비·붐」의 시기에 集中的으로 出生한 사람들이 生産年齡人口가 된 1970 ~ 1979년의 기간에는 年平均 3.4%로 急增하다가 出產低下의 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 ~ 1984년 사이에는 年平均 2.4%의 완만한 增加로 바뀌게 된 것이다.

經濟活動參加率도 '60年代에는 年平均 55.5%이던 것이 '70年代에 56.9%로 높아졌다가 '80年代 초반에는 56.0%로 低下하였다. 물론 이러한 經濟活動參加率의 變化는 所得水準과 教育水準의 變化나 經濟成長 및 景氣變動과 같은 社會·經濟的 要因에 의하여 주로 影響을 받고 있지만, 長期人口成長의 影響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生産年齡人口의 增加鈍화와 經濟活動參加率의 低下가 겹쳐 '80年代 초반에 이르러 經濟活動人口 즉, 有効供給勞動力의 增加率은 '60年代의 2.5%와 '70年代의 3.7%보다 현저하게 낮은 1.2%의 水準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勞動力供給의 相對的 減退傾向이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지를 豫見하는 쉽지 않다. 勿論 出生水準의 低下가 最近까지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서기 2000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도 生産年齡人口의 絶

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經濟活動人口年報, 1984, p.16.

對數는 커질지라도 增加率은 지속적으로 低下될 것이 確實하다.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長期人口推計에 따르면 1990년에는 生産年齡人口의 增加率이 1.7%, 그리고 서기 2000년에는 1.2%가 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²⁾ 그러나 經濟活動參加率이 1978년의 58.0%를 頂點으로 계속 低下되기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80年代 초반에 經濟活動參加率을 低下시킨 것은 젊은 生産年齡人口의 高等教育就學率이 急增하였고, 經濟成長의 鈍化와 景氣의 下降에 따라 失望勞動力이 非經濟活動人口로 은폐되었으며, 農村 勞動力이 都市로 移動하면서 종래 家族 從事者들이 家事나 學業에 전념하는 傾向이 커진데 크게 影響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젊은 生産年齡人口의 高等教育就學率이 이미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高等教育就學率의 向上이 상당히 鈍化될 것이며, 오히려 高等教育을 마친 사람들의 經濟活動參加率은 높아질 수도 있다. 世界經濟가 '90年代 中반이후 上昇局面으로 접어들 展望이며, 우리經濟 역시 景氣沈滯에 對應하여 成長 潛在力을 키워 '90년대 中반부터 活氣를 떨 여지가 크다. 또한 都市化의 추세가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離農家口의 女性이 經濟活動을 포기하는 것보다 都市女性의 經濟活動參與增加가 오히려 클수도 있다.³⁾

이렇게 몇 가지 可能性을 豫見할 때 最近의 經濟活動參加率의 低下는 결코 長期的 趨勢로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先進產業國에서 15~64세 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이 거의 70% 水準까지 올라가는 점에 비추어 14세 이상의 人口 전부를 生産年齡人口로 擴大解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78년의 58.0%를 頂點으로 하여 그후 低下되고 있는 우리나라 經濟活動參加率의 變化는 '80年代 이후 다시 反轉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生産年齡人口의 增加가 지속적으로 減退되더라도 經濟活動人口의 增加는 서기 2000년까지 점차 그 속도는 低下되겠지만 持續될 수

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部門), 1983, pp.169~173 參照.

3) ILO, Labor Force Projections 1965~1985, Geneva, 1973, Part VI 및 Guy Stand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2nd ed., ILO (Geneva), 1981, p.14에서는 經濟發展過程과 관련하여 女性經濟活動參加率은 U형을 취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후에 관해서도 勞動力供給의 增加가 현저하게 減退될 것으로 樂觀하기는 어렵다. 動亂이후 「베이비·붐」의 시기에 出生한 人口가 最近에 이르러 새로운 出產人口가 되고 있어 또 한번의 出生增加現象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⁴⁾ 만약 지금부터 젊은 可妊人口의 出產水準을 현저하게 低下시키지 못한다면 새로 出生하는 人口는 당분간 크게 擴大될 것이고, 이들이 生産年齡人口로 자랄 21世紀의 初에는 女性 및 老齡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 上昇과 겹쳐 勞動力供給은 상당히 높은 增加를 다시 보이게 될 수도 있다.

長期人口成長이 향후 勞動力의 供給規模에 影響을 미칠 뿐아니라 勞動力의 供給構造도 크게 變化시킬 展望이다.

人口成長의 第1段階에서 大量流入되었던 人口는 대부분 이미 長·老年層이 되었고, 第2段階인 「베이비·붐」시기에 急增하였던 出生人口 역시 이미 20代가 된 狀態인데다 第3段階의 人口成長鈍化期에 出生한 人口의 일부가 젊은 勞動力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供給勞動力의 人口學的 特性이 크게 바뀔 것이며, 또한 우리 經濟가 産業化過程에 들어선지 이미 4半世紀가 경과되어 所得水準, 教育水準, 都市化 程度 및 女性의 社會參與 등이 急變하고 있어 供給勞動力의 社會經濟的 特性 또한 앞으로 더욱 急速히 變化할 것이기 때문이다.

勞動力의 人口學的 特性和 社會經濟的 特性的 變化에 의하여 예견되는 供給勞動力의 중요한 構造變化는 ① 壯年化 및 老齡化, ② 高學歷化, ③ 女性勞動力의 相對的 增大, ④ 勞動力의 都市集中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長期人口推計에 따르면 1985年 全體人口의 71.3%인 14세 이상의 生産年齡人口比重은 계속 增大되어 서기 2000년에는 76.6%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이들 生産年齡人口 가운데 14~29세의 젊은 層은 1985년에 47.3%를 차지하지만 서기 2000년에는 35.2%로 低下되는 대신 30~64세의 壯年層은 46.9%에서 56.7%로 크게 擴大될 것이다. 물론 65세이상의 老年層 역시 5.8%에서 8.0%로 增大되기는 하지만 서기 2000년까지만 보면 老年層의 比重增大가

4)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前揭書, p.73.

Table 1. Trend and Prospect of Labor Force Supply

Year	Productive Age Pop.(1,000)	Participation Rate(%)	Economically Active Pop.(1,000)
1965	15,937	55.6	8,859
1970	18,984	55.9	10,199
1975	21,833	56.5	12,340
1980	25,335	57.1	14,454
1984	27,793	53.9	14,984
1990	31,635	59.3	18,769
1995	34,291	61.0	20,902
2000	37,074	61.1	22,648
2005	39,599	61.6	24,381

Source: 1) 1965-1984 Data from Annual Repor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OS, EPB.

2) 1990-2005 from Long Term Population Projection,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⁵⁾

이 기간에 젊은 층에서는 高等教育指向性이 다소 완만해지면서 계속 增大될 것이므로 이들의 經濟活動參加率이 거의 停滯되거나 미약하게나마 낮아질 展望이며, 老年層에 있어서도 所得水準의 向上과 老齡年金制의 定着으로 經濟活動參加率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두터워질 壯年層의 경우 既婚女性の 經濟的 活動慾求가 커짐에 따라 이미 높은 水準에 도달한 男子의 經濟活動參加率에 별다른 變動이 없다고 볼 때 男女의 平均 經濟活動參加率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生産年齡人口의 壯年化 傾向과 壯年層의 經濟活動參加率이 青年 및 老年層에 비하여 높아지면 서기 2000년까지 供給勞動力이 長年化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 勞動力의 壯年化現象은 老齡化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베이비·붐」의 시기에 出生한 사람들이 50代로 접어들게 되며, 出產低下期에 出生한 젊은 勞動力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低下되는 대신 50代 이후의 老年層 勞動力

5)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前掲書, pp.169-173.

比重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供給勞動力의 教育程度는 젊은 勞動力의 教育水準이 급격히 向上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展望이다.

이미 義務教育인 국민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의 경우에도 就學率이 거의 100%에 가깝다. 1960년에 18.8%에 지나지 않던 15~17세 人口의 高等學校 就學率이 1980년에는 62.8%에 이르렀고, 서기 2000년에는 거의 90%에 接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21세 人口에 대한 大學生數의 比率도 1960년에는 6.0%이었으나, 1980년에는 15.9%, 그리고 1984년에는 30%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거의 50%水準에 가까울 것으로 展望된다.⁶⁾

특히 高等學校 이상의 教育機關에 대한 就學率이 향상되면 그 당시로서는 이들 젊은 生産年齡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을 低下시켜 雇傭負擔을 輕減시키지만, 卒業後에는 勞動力의 高學力化를 초래하여 産業 및 職種別 勞動力構造를 變更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女性勞動力의 比重은 점차 커지고 있다. 1963년에 全體 經濟活動人口 가운데 여자가 34.5%이던 것이 1970년에는 36.1%로 많아졌고, 1980년에는 37.6%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대체로 젊은 女性勞動力이 主軸을 이루었으나 점차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加가 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女性經濟活動人口가 많아지는 것은 生産年齡人口가 增加하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이 높아지는데 크게 기인한다. 1963년에는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이 36.3%이었고, 1970년에는 38.5%, 그리고 1980년에는 41.6%로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은 教育水準, 所得水準, 出產水準, 景氣變動 등 여러가지 요인의 復合作用에 의하므로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대체로 젊은 층에서는 教育水準이 向上되고 있으며, 農村에서는 이미 상당히 높은 狀態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經濟活動參加率이 크게 向上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都市의 既婚女性層에서는 經濟活動參加率이 계속 上昇趨勢를 보일 것은 틀림없다. 臺灣의 女性經濟活動參加率이 이미 54%에 이르렀고, 日本 역시 47%인 점으로 미루어 서기 2000년경에는 50% 가까운 水準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男子의 經濟活動參加率이 상당히 높아진 狀態이므로 향후 크게 上昇할 기미를 보

6) 韓國教育開發院, 2000年을 向한 長期教育發展構想, 1984, p. 82

이지 않는데 反하여, 女性的 經濟活動參加率은 今世紀 말까지 完만하게나마 持續的으로 上昇한다면 전체 供給勞動力 가운데 女性이 차지하는 比重은 서기 2000 년에 40%를 훨씬 상회하는 水準에 이를 것이며, 結果적으로 勞動力의 女性化 傾向을 보 이게 될 것이다.

Ⅲ. 勞動力需要의 變化

勞動力의 需要는 派生需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左右된다.

'60年代 초 이래 우리 經濟는 工業化에 의한 高度成長을 지속하였다. 물론 初期 工業化의 實現이 可能하였던 것은 過剩人口에 의하여 싸고 豊富한 勞動力을 活用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長期 人口 成長의 影響을 크게 받은 셈이다.

1963~1969년 사이에 實質經濟成長은 年 9.8%에 이르지만 附加價值 生産性 向上이 年平均 6.2%이었으므로 勞動力需要는 年平均 3.6%의 增加에 그쳤다.

1970~1979년의 기간에는 實質經濟成長이 年 9.4%이며, 附加價值生産性의 向上이 年平均 5.5%이었기 때문에 雇傭의 增加는 年平均 3.9%에 이르렀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年平均 4.7%로 떨어졌음에도 附加價值生産性의 向上이 年平均 3.4% 水準에 있었던 1980~1984년 사이에는 雇傭의 增加는 年 1.3%에 지나지 않았으며, 1984년에는 前例가 드문 0.7%의 雇傭減少를 경험하였다.⁷⁾

'80年代 후반은 이미 第6次 經濟社會發展計劃을 통하여 年 7%의 經濟成長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附加價值生産性의 向上이 年 5.5%정도 향상될 展望이므로 이 기간의 雇傭增加는 年 1.5% 水準이 될 것이다. '90年代에 있어서도 대체로 이러한 추세를 보이겠지만, 附加價值生産性의 向上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면 대체로 雇傭增加는 年 1.2% 정도로 예측된다.⁸⁾

7)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에서 計算된 것임.

8) 韓國開發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總括報告書), 1985, p.23에서는 1984~1990年 期間의 雇傭增加를 年 2.0%로 推定하고 있으나, 다소 높게 推算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Trend and Prospect of Demand for Labor

Year	GNP (1,000 million won 1980 constant price)	GNP per employed (million won in 1980 constant price)	Employed (1,000 persons)
1965	3.9	4.7	8,206
1970	17.3	17.7	9,745
1975	26.1	22.1	11,830
1980	37.2	27.1	13,706
1984	49.2	34.1	14,417
1990	75.8	46.7	16,235 ³⁾
2000	147.1	80.4	18,297 ³⁾

Source : 1) GNP from Bank of Korea and KDI.
 2) Employed from BOS, EPB.
 3) Estimated

향후 雇傭增加는 점차 鈍化되겠지만 雇傭構造의 變化는 오히려 급속해 질 것이다. 예상되는 雇傭構造의 變化는 ①省力化, ②軟性化, ③被傭者의 比重 增大를 特徵으로 할 것이다.

「2000 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에서도 밝혀진 바 있거니와 産業轉換과 産業의 自動化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個別産業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省力化의 물결이 급격하게 밀려 올 것이 확실하다.

纖維産業과 같은 勞動使用的 部門이 斜陽化하고 造船業과 鐵鋼業 등 勞動使用的인 重工業部門 역시 '80 年代 말을 고비로 크게 衰退될 展望이므로 이들 部門의 雇傭이 격감할 우려가 있다. 특히 製造業의 각 部門에 걸쳐 單純勞動力에 의존하던 工程이 「로봇」에게 맡겨지는 이른바 工場自動化가 이미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加速化될 展望이다. 그 결과 製造業部門의 單純勞動力의 需要는 '90 年代부터 격감할 것이다. 그대신 精密化學, 精密機械, 精密素材, 産業用電子 및 重電氣工業과 같은 技術·技能人力을 必要로 하는 産業部門이 持續的으로 勞動力을 흡수해 줄 것이다. 현재로서는 흔히 未來産業이라고 불리우는 通信·情報産業, 新素材産業, 시스템産業 및 生命工學産業 등 고도의 研究開發人力과 技術人力을 必要로 하

는 部門에서 高級科學技術人力을 크게 需要할 것이다.⁹⁾

省力化의 傾向은 製造業分野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金融·保險 등 서비스 部門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事務自動化를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農業部門에서도 機械化와 함께 自動化가 폭넓게 확산될 것이다.

社會全般에 걸쳐 所得水準이 높아지고 經濟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전통적인 서비스産業의 比重이 增大될 뿐 아니라 情報産業, 餘暇産業, 엔지니어링 등 새로운 서비스産業이 크게 확대되어 産業構造面에서 소프트産業의 比重이 급격히 증대됨으로써 産業의 軟性化 傾向이 뚜렷해질 것이다. 그 결과 1983 年에 農林水産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업의 附加價值 構成費가 각각 14.2%, 29.4%, 56.4%이던 것이 서기 2000 년에는 8.3%, 33.2%, 58.5%로 바뀌고 就業者의 構成費도 1983 年에 29.7%, 23.3%, 47.0%에서 2000 년에는 16.1%, 27.9%, 56.0%로 바뀌게 될 것이다.¹⁰⁾

雇傭構造의 軟性化는 職業構造의 측면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60년대 초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에는 農林漁業에 종사하는 勞動力이 격감하면서 生産·運輸裝備 運轉·單純勞務者와 專門技術·行政·事務職 및 販賣·서비스部門의 勞動力이 모두

Table 3.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ies

(Unit : %)

Year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Mining & Manufacturing	SOC & other Services
1965	58.6	10.4	31.0
1970	50.4	14.4	35.2
1975	45.9	19.1	35.0
1980	34.0	22.6	43.4
1984	27.1	24.3	48.6
1990	21.8	26.0	52.2
2000	16.1	27.9	56.0

Source : EPB and KDI.

9) 韓國開發研究院, 前掲書, pp.87 ~ 93 參照.

10) 韓國開發研究院, 前掲書, p.32

현저하게 增加해 왔으나, 앞으로는 農林漁業의 勞動力減少가 다소 鈍化될 것이며, 生産・運輸裝備運轉・單純勞務에 종사하는 블루우 칼라 (Blue Collar)의 勞動力 增加도 뚜렷이 鈍化되는 대신 專門技術・行政・事務職 및 販賣・서비스部門의 화이트 칼라 (White Collar) 또는 그레이 칼라 (Grey Collar) 勞動力이 상대적으로 急激한 增加를 보일 것이다.

從事上の 地位別 就業者의 構成도 急激히 變化할 것이다. 이미 그 比重이 현저하게 低下되었을 뿐 아니라 그 絕對數도 계속 감퇴되어 온 無給家族從事者가 앞으로 더욱 急激히 減退될 것이며, 自營業主의 비중 역시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低下됨으로써 被傭者의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물론 雇傭構造의 省化力, 軟性化 및 被傭者化와 같은 變化의 속도는 經濟發展의 程度만이 아니라 勞動力의 供給事情에 의해서도 달라질 것이지만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질 것이 확실하다. '80年代 후반보다는 '90年代에, 그리고 '90年代보다는 21世紀 初에 이를수록 勞動力의 量보다는 質을 중요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勞動力需給 展望

人口成長의 第1段階過程을 통하여 勞動力供給이 需要를 크게 초과한 '60年代初까지 現在的 또는 潛在的 失業이 누적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60年代初부터 經濟開發計劃에 착수하면서 勞動力의 需給不均衡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1963년에 무려 8.2%에 이르던 完全失業率은 1963~1969년의 기간에 勞動力의 需要增加가 年 3.6%로 供給增加 年 2.5%보다 1.1%씩이나 빨랐기 때문에 1969년에는 4.8%의 水準으로 크게 低下되었다.

'70年代에는 第2段階 人口增加의 影響으로 勞動力供給이 年 3.7%로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이 기간에 보인 高度經濟成長으로 勞動力需要가 이 보다 높은 年 3.9%에 이르렀기 때문에 潛在失業을 흡수하면서 完全失業率을 낮출 수 있었고, 그 결과 1979년의 完全失業率은 3.8%로 낮아졌다.

第3段階의 人口成長抑制效果가 勞動力供給의 증가를 鈍化시키기 시작한 '80年代 初에 이르러 勞動力需要의 증가도 현저하게 鈍化된 것은 그런대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1980 ~ 1984 年 기간에 勞動力의 供給과 需要가 모두 年 1.3 %로 비슷한 增加率의 鈍化를 보임으로써 1984 年의 完全失業率은 1979 年과 같은 3.8%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60 年代 初以來 지금까지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雇傭規模를 결정하는 經濟成長이 長期人口成長의 影響을 받는 勞動力供給의 變動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된 셈이다. 물론 過剩勞動力이 低賃金을 유지시켜 주었고, 그것이 國內產業成長과 國際競爭力을 뒷받침함으로써 高度經濟成長이 可能하였으며, 그결과 높은 雇傭吸收能力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볼 때 지금까지 經濟成長과 勞動力供給 사이의 적절한 調和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들 사이의 相互依存關係에 의한 것임을 立證하기도 한다.

그러나 勞動力需給의 調和가 최근에 이르러 攪亂될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長期에 걸쳐 維持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던져주기도 한다.

1970 年 이후 대체로 4 % 內외의 일정한 完全失業率을 유지하면서 勞動力需給의 變動이 서로 비슷한 樣態를 보이고 있는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就業特性이 反映된 결과이었다. 先進產業國家에서는 일찍부터 失業保險制度가 確立되어 失業이 精確하게 露出되거나 오히려 過大露出되는 傾向이 있지만 失業保險制度가 없어 전적으로 自己保障에 依存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失業者들이 行商 등 다른 生業을 마련하거나 失望勞動力으로 非經濟活動人口에 恩賜되는 도리밖에 없어 經濟成長이 鈍化되거나 景氣가 下降하여 雇傭이 감축되면 勞動力供給도 함께 감축되었던 것이다.¹¹⁾ 그러나 조만간 우리도 失業保險制度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韓國의 특성성에 의한 勞動力需給의 調和를 長期的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向後 勞動力需給의 調和가 攪亂될 것으로 보는 더욱 중요한 根據는 需給의 構造變化가 서로 일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勞動力供給의 構造變化는 앞으로 壯年化, 高學歷化, 都市化 및 女性勞動力의 增大를 特徵으로 하는데 비하여 勞動力需要의 構造는 省力化, 軟性化, 被傭者의 增大를 特徵으로 變化할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11) 金秀坤, 勞動力供給과 失業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76, pp.98 ~ 104 參照.

알핏보면 이 兩面의 構造的 變化가 상당히 性格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經濟發展의 추세가 自動化를 指向함으로써 生産職 勞動力을 위시한 勞動力 전반의 需要增加를 緩和시키겠지만, 勞動力供給面에서도 增加速度가 현저히 鈍化될 것이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供給面에서 젊은 層의 高等教育指向性으로 低學歷 勞動力供給이 줄고 高學歷 勞動力供給이 늘 뿐 아니라 女性勞動力의 비중이 증대될 것인데, 需要面에서도 高級人力の 需要가 늘고 産業 및 職業構造가 「소프트」화 한다면 이 또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勞動力需給構造의 變化가 서로 같은 時期에 같은 速度로 이루지기 힘들다는데 問題가 있다. 이미 '70年代 후반에 重化學工業化和 國際化的 급격한 추진으로 技術·技能人力の 需要가 급증하였으나, 人力の 養成, 配分 및 活用과 같은 供給體制의 變化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總量的 過剩속에서도 여러 部門에 심각한 人力不足을 초래하였던 經驗이 있다. 당시의 高級人力 不足 때문에 高等教育的 投資收益率이 크게 높아졌고, 所得水準의 向上이 加勢하여 '80年代 初에는 젊은 勞動力人口의 高等教育指向性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오히려 勞動力의 供給面에서 低學歷·低賃金の 젊은 勞動力이 급격히 줄어든 대신 高學歷·高賃金の 젊은 勞動力은 過剩供給되기에 이르렀다.

'70年代 후반에는 勞動力의 需要構造가 먼저, 그리고 빨리 變化하였음에도 供給構造의 變化가 遲滯된데서 야기된 勞動力需給構造의 不均衡이 있었다면 최근의 需給構造不均衡은 오히려 供給構造가 먼저, 그리고 빨리 變化함에도 需要構造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데서 招來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關心을 끌고 있다. 이러한 不均衡은 아마도 '80年代 후반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 이 기간에는 勞動集約的인 産業部門에서 生産職 또는 單純勞動力의 確保難을 초래하고 이들에 대한 賃金水準도 크게 上昇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高學歷의 過剩勞動力에 대해서는 임금의 相對的 低下와 職種의 下向調整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生産職 또는 單純勞動등 부루갈라 勞動力의 賃金上昇이 급격하면 企業의 工場自動化를 재촉하여 省力化가 가속될 것이며, 高學歷 人力の 賃금이 상대적으로 低廉해지고 職種의 下向調整이 보편화되면 産業 및 職種의 軟性化도 가속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勞動力의 需要構造變化가 급격해지는 시기는 '90年代 中반이후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轉換過程에서 먼저 부족을 느끼는 부류갈라 勞動力의 代替人力으로 既婚女性, 老齡勞動力 및 障礙者勞動力 등의 개발이 活氣를 띠울 것이며 高學歷 過剩人力의 흡수를 위하여 産業全般에 걸쳐 勞動時間이 현저하게 斷縮될 展望이다.¹²⁾

'90年代 후반이후에는 다시 勞動力需要의 構造變化가 供給構造의 變化를 앞지르게 되어 雇傭吸收能力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이 시기는 「베이비 붐」 기간에 集中 出生하여 '80年代 초부터 可姪人口로 성장한 사람들에 의하여 出生할 人口가 勞動力供給에 加擔할 時期이므로 勞動力供給은 다시 상당한 水準으로 增加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供給超過를 招來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警戒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V. 對應姿勢

勞動力의 供給部門에 결정적인 影響을 미치는 長期人口成長과 勞動力의 需要部門에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經濟發展動向을 연관시켜 觀察할 때 우리나라의 總量的 勞動力需給事情은 장기적으로 供給過剩의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傾向은 서기 2000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도 持續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60年代 초이래 그러하였던 것처럼 한편으로 人口增加를 최대한으로 抑制하면서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經濟成長을 높은 水準에서 유지함으로써 勞動力의 需給兩面에서 供給過剩에 對應하는 도리밖에 없다. 특히 需要側面과는 달리 供給側面에서 人口成長과 勞動力供給變動 사이에 긴 時差가 개재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 보면서 미리 人口增加를 抑制할 必要가 있다.

물론 勞動力의 需給構造面에서 서로 조화를 찾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人力의 不足이 나타날 수 있는 可能性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構造의 不均

12) 朴世逸, “高等教育擴大가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 韓國開發研究, 1982, 가을호 및 1983 봄호 參照.

13) 韓國開發研究院, 2000년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總括報告書), 1985, p.186
에서는 1980年 平均 週當勞動時間은 54.0 시간인데 1990년에는 45.0 시간, 그리고 2000년에는 41.0 시간으로 斷縮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衡에 대해서는 根本적으로 賃金 등 勞動市場의 媒介變數的 機能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勞動力의 供給側面에서는 人力의 養成, 配分 및 活用體制를 확립하여 對應할 수 있을 뿐이며, 人口의 規模나 構造를 變動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기본적 對應方向에 비추어 볼 때 向後 勞動力需給의 調和를 模索하기 위한 方案은 쉽게 도출된다.

이미 그 徵候가 나타나고 있으며, '80年代 후반에 더욱 深化될 것으로 展望되는 問題는 低學歷·低賃金의 젊은 勞動力供給이 급격히 減少함으로써 生産職 및 單純 勞動力이 부족하게 되는 반면, 高學歷, 高賃金의 젊은 勞動力은 過剩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 問題는 本質적으로 構造的 不均衡이기 때문에 最低賃金制를 導入하여 生産職 및 單純 勞動力에 대한 低賃金を 없애고 學歷間 賃金隔差를 줄여서 해소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低學歷 生産職 勞動力의 賃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우선 젊은 層의 高等教育指向性이 緩和될 것이며, 高學歷 遊休 勞動力의 下向的 職業調整이 促進될 것이다. 나아가서 企業側에서는 低賃金에 依存하려는 他性에서 벗어나 省力化를 앞당길 것이다. 물론 賃金調整과 함께 職業安定機能을 強化하여 職業 및 就業 情報가 불충분하여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低學歷의 젊은 勞動力과 斜陽産業으로부터 排出되는 失職 勞動力을 職業訓練이나 直接就業으로 유도해야 하며 時間制 就業, 停年延長, 固有職場開發 등에 힘써 既婚女性人力과 老齡人力 및 障礙者 勞動力과 같은 代替人力의 活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一時的이고 構造的인 需給不均衡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민하여 市場機能 및 政策的 調整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總量面에서 潛在된 過剩供給이 표출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90年代에는 勞動力需要面에서 省力化, 軟性化 및 被傭者化의 속도가 급격할 것이므로 雇傭機會가 크게 減縮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勞動時間을 短縮하고 써비스部門을 위시하여 雇傭能力을 크게 增進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負擔은 그 이후 더욱 加重될 것이며, 21세기 초에는 젊은 勞動力이 다시 增大될 可能性마저 없지 않아 더욱 雇傭增大 및 雇傭調整의 負擔이 커질지도 모른다.

21世紀에 이르러 젊은 勞動力이 증대될 것인지의 여부는 '80년대의 出生水準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動亂 이후 「베이비·붐」의 시기에 出生하여 최근에 可

妊人口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의 젊은 夫婦를 對象으로 하여 集中的으로 出産抑制를 誘導하는 것이 21世紀 初의 過剩勞動力供給을 豫防하는 途徑이라고 말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84

_____, 主要經濟指標, 1984

韓國開發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總括報告書), 1985

韓國教育開發院, 2000年을 向한 長期教育發展構想, 1984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部門), 1983

金秀坤,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韓國教育開發院, 1976

朴世逸, “우리나라 教育投資收益率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4卷第3號,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2

_____, “高等教育擴大가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 韓國開發研究, 第4卷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3

ILO, Labor Force Projection 1965 ~ 1985, Geneva, 1973, Guy Stand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2nd ed., ILO (Geneva), 1981

(Abstract)

**Impact of Population Growth on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Transition and Prospect**

Rae-Young Park*

Three stages of population growth during last forty years affected differently to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The first impact of rapid population growth on the labor force occurr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udden growth of population due to repatriation and refugees directly increased the labor force. Deteriorating labor market conditions were caused not only by the explosive labor supply but also by the shorta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due to a lack of productive facilities. This severe excess supply of labor continued until the early 1960s.

Population growth in the second stage which caused by high fertility during the post Korean War baby boom period induced an eventual increase in the labor supply with time lag of more than fifteen years.

Younger persons born during baby boom period were flooded the labor market. Fortunately, job opportunities were expanded more rapidly than the labor force supply because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and speedy industrialization were continued until the later half of 1970s. Unemployment, therefore, de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is period.

The effect of third stage which is characterized as mitigated population growth due to birth control has appeared in the labor market since late 1970s. The growth rate of labor force has been going down and the proportion of younger workers was also been decreasing. From the early 1980s, furthermore, partial disharmony between supply of and demand for the younger workers is closing up. Less educated younger workers who works at low wage are lacking while more educated youngers who want to work at high wage are being exces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ong-Ik University.

because a lot of younger prefer higher education rather than productive job.

It is expected that the structural inharmony will be diversified in the future in Korea. The labor force will be changed to middleaged, highly educated and womenized till year 2000, and, after then, to old-aged. On the demand side, industries and jobs will transferred to be labor-saving and soft. These structural changes of labor supply and demand will not matching in time.

Aggregate supply of labor force will be steadily increasing more rapidly than aggregate demand for labor until year 2000,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to the first one or two decades of the 21th century because the persons born during the baby boom period are being eligible couples in recent.

Therefore, conclusion is that appropriate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sustained birth control policy is necessary for harmonizing the structural unbalance and the disequilibrium between aggregate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future.